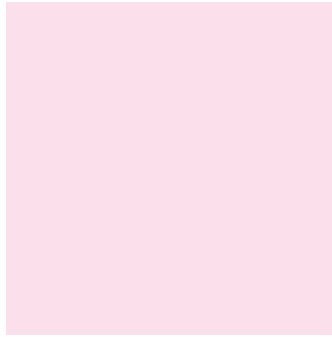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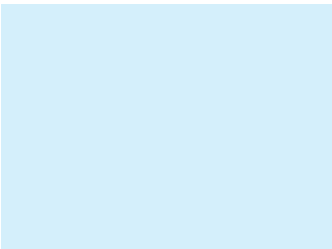




특집 \_ 21대 총선 재외선거, 코로나19로 선거인 23.8%만 투표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한국, 성공적 코로나 대응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Courage** 두리틀을 옮기면 다스라세요!  
**Openness** 발의 마음은 이웃 나라에 대한 환심을 원하지 않아요!  
**Victory** 우리는 승리할 것임이 다!  
**Information** 선정보록 발령해주세요!  
**Defence** 받아주세요!  
**1day 9people** [하루 9명에게 마음을 나누어요]



# 재외국민 선거제도 꼭 보완해야



장완익

기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우리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71,000명 중 40,858명이 참여하여 투표율이 23.8%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 지역 재외선거인이 87,269명으로 50.7%의 재외선거인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라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재외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이에 재외국민의 투표 시한(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이 지나서 선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해명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관에서 투표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투표하려고 귀국했던 재외국민들 중에도 재외선거가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야만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4월 10일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하여 중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단과 같이 국가가 기본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저 투표율이라고 하지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소까지 가서 선거권을 행사한 40,858명의 재외국민과 선거사무 중단으로 비록 투표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안타까워했던 더 많은 재외국민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꼭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많은 나라가 선거를 연기하는 와중에서도 재외선거와 국내선거가 철저한 코로나19방역 아래에 안전하게 진행되어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힘듭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코로나19와 싸워 이깁시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창**





04



06



16



- 02 권두언 재외국민 선거제도 꼭 보완해야  
장왕익 기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장
- 04 특집 21대 총선 재외선거, 코로나19로 선거인 23.8%만 투표
- 06 화제 1 문재인 대통령 “한국, 성공적 코로나 대응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 08 화제 2 “한국이 더 안전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재외동포 귀국행렬
- 10 글로벌 코리아인 코로나19로 촉발된 인종차별 비판한 한국계 미 배우 대니얼 대 김  
한인사회 · 고국에 손 소독제 기부한 호주동포 기업인 박성만 회장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인 마스크 공장 운영하는 이병복 사장
- 12 한민족 공감 1 “코로나19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막지 못한다”
- 13 한민족 공감 2 서울서 자가격리 체험한 프랑스 기자의 편지... “상식 통하는 시스템”
- 14 한민족 공감 3 연해주 독립운동 대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기 맞아
- 15 주목! 차세대 바리스타 세계대회 앞둔 뉴질랜드 국가대표 채승훈 씨
- 16 동포소식 각국 한인회 · 한인단체, ‘집콕’ 한인 · 현지인들에 따뜻한 나눔 손길
- 19 동포 캘린더 고려인, 러시아 극동 10만 도시 시장으로 공식 선출돼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코로나19가 바꾼농은 베이징 시민들의 일상
- 21 지구촌 통신원 2 “방역 베테랑 한국에 경의”... 유럽의 코로나19 거점 이탈리아의 찬사
- 22 지구촌 통신원 3 인도 한인사회, 코로나19 따른 봉쇄령 속 다양한 지원 활동
- 23 유공 동포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로 불린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 24 OKF 뉴스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재단, 희망 릴레이 캠페인 시작
- 25 우리말 배워봅시다
- 26 기고문 코로나19에 대응해 지구촌 한인들과 함께하고 싶은 일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1대 총선 재외선거, 코로나19로 선거인 23.8%만 투표

## “재외선거, 우편·인터넷 투표제 도입해야” 목소리 커져

**제**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선거인들의 투표(재외투표)가 4월 1~6일 실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팬데믹이 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1천959명 중 4만858명이 참여해 투표율 23.8%를 기록했다. 이같은 투표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쪽 선거’가 된 셈이다. 투표권 행사를 원천 차단당한 재외선거인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선거인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에서 등록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투표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투표율은 역대 최고라며 재외국민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상열 뉴질랜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는 4월 8일 “17만1천959명 가운데 선거사무를 중지하지 않아 투표가 가능했던 재외선거인은 8만7천269명으로 이 가운데 4만85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므로 실질 투표율로 보면 재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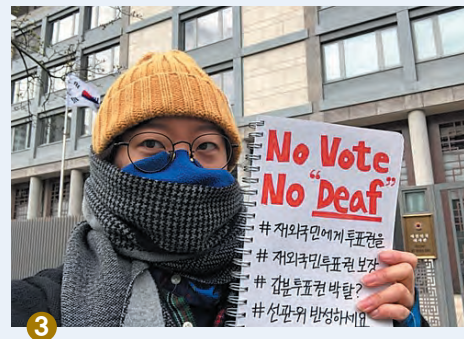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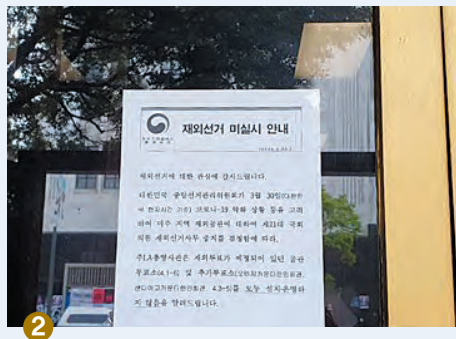
거를 시작한 19대(2012년·45.7%)와 20대(2016년·41.4%)와 비교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곽 대표는 “더욱이 36개 공관에서 투표일을 단축한 데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투표율이므로 정치권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확산 심각한 미국·캐나다·유럽 주요국 선거인 투표권 행사 못 해

이번 재외선거는 당초 17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82개 공관에서 치러지고 94개 공관에서는 실시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4월 7일 밝힌 대륙별 재외투표 상황은 아시아가 선거인 수 8만 6천126명 가운데 3만6천550명이 투표해 42.4%의 투표율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투표 업무 중단으로 인해 선거권 행사 기회 상실이 가장 컸던 곳은 미국과 유럽이다.

선거인 수 5만6천739명인 미주 대륙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전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중미와 남미 몇몇 국가에서 530명이 투표해 0.9%의 투표율을 보였다. 유럽도 선거인 2만1천576명 가운데 2천344명이 투표하는 데 그쳐 투표율이 10.9%에 머물면서 대부분의 등록 유권자가 아쉬움





4

을 삼켜야 했다. 중동 지역은 선거인 수 5천519명 가운데 953명이 투표해 투표율 17.3%, 아프리카는 선거인 1천999명 중 481명이 참여, 투표율 24.1%를 각각 기록했다.

재외국민 등록 유권자 수가 1만 명을 넘는 나라 중 선거가 전면 또는 대부분 진행된 나라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이다. 투표율이 높은 3개국 투표 상황은 일본이 선거인 수 2만1천957명 가운데 1만682명이 투표해 48.6%의 투표율을 보였고 중국은 선거인 2만549명에 9천385명이 투표, 투표율 45.7%였다. 베트남은 선거인 수 1만4천317명에 6천344명이 투표, 4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어렵게 투표한 만큼 한 표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

이번 재외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권자나 선거관리 종사원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다. 또, 일부 지역 유권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표로 인해 추가 격리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재외공관 측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제, 일회용 장갑, 열화상 카메라 등을 준비했다. 또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할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접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남아 다수 국가에서는 국가 봉쇄 및 비상사태 선포나 투표일 단축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는 두 도시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됐지만,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재외국민들이 셔틀 차량을 제공해 투표를 제고에 일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선거인 3천348명 가운데 1천767명이 한 표를 행사, 투표율 52.7%로 역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기간을 4~6일 사흘로 단축한 가운데서도 나온 결과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문영주 영사는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중앙선거위를 비롯해 선거관계자들이 모두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1.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 한국중앙회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대사관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소 건물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자의 체온을 점검하고 투표소에 손 소독제와 장갑 등을 비치했다.
2. 4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입구에 4·15 총선 재외투표 선거사무 중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3.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진 독일 동포들이 3월 2일 주독 한국대사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4. 4월 1일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관 1층 강당에 있는 재외 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투표한 박상윤 상하이 한국상회 회장이 투표용지를 담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예상했는데, 정말 뜻밖의 결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고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이 높아졌고, 각국이 모두 외출을 제한하다 보니 투표장으로 발걸음이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어렵게 투표한 만큼 한 표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다.

### “바이러스 확산 사태 벌어질 때마다 재외선거 사무 중지할 것인가”

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사무 중지 탓에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동포사회에서는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게 나오고 있다.

재외선거 투표 참여운동을 위한 한인동포들의 모임인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3월 31일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1개국이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과 조직업무를 총괄하는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코로나19가 내년 봄에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현행대로면 앞으로도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문 대통령 “한국, 성공적 코로나 대응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참석...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성공적인 대응 모델’로 표현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둔화세로 접어들었고, 한국의 대응에 대한 세계 각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

자 발견 ▲감염 경로 추적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등의 대응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시약 조기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자가격리 앱 등 창의적 방법들이 동원됐고, 사람·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고 G20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 ‘코로나외교’... “한국 경험 공유 및 의료기기 지원 요청 이어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 방식의 다자 정상외교와 별도로 양자 정상외교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4월 2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까지 총 15차례의 정상통화를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터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정상과 통화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기준으로 31일 동안 15차례, 즉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정상통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 한국의 방역 체계 경험 공유 및 국내산 진단키트와 의료기기 지원 요청 등이 이어진 점이 정상통화가 빈번하게 이뤄진 요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 WHO, 문 대통령에 “세계보건총회서 아시아 대표로 발언해달라”

문 대통령은 4월 6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화를 요청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전날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7명 증가해 46일 만에 50명 이하를 기록한 것을 두고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이런 방식이 공유되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면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특히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대통령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해 발언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생명 구할길 기대”

한편 문 대통령은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는데,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



3



4

령은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절실하게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국가가 되었는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서, 국민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며 연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다시피 되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개발 노력이나 비용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치료 약이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구매해 노력·비용을 100% 보상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

1.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4월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3. 문 대통령이 4월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협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4월 9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시설에서 김승택 연구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약물 재창출 과정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국이 더 안전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재외동포 귀국행렬

도착 후 검역·통제 속 바이러스 검사... “대한민국 자랑스러워”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각국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행렬’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인 이민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재외동포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적지 않은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서둘러 귀국하게 된 것은 그만큼 현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각국 동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국돕기 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나 상황은 급변했다. 4월 20일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250만 명, 사망자는 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은 이날 기준 확진자 수가 70만 명,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서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치고 코로나19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가 됐다.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세계 대부분 국가가 국경 폐쇄와 항공 운항 중단조치를 취했다.

각국 한인 동포들은 생필품 사재기 현상에다 자택 대피령까지 겹치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지 의료체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마치 피난길에 나서듯 귀국행렬이 이어지게 됐다. 한국도 코로나19 환자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발 빠른 대응으로 관리되는 상태로 완화됐고, 무엇보다 손쉽고 빠른 진단과 확진 받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피하는 데는 조국이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각국이 속속 국경을 봉쇄한 탓에 한국으로 가는 길은 피난길 못지않게 어려웠다. 여객기 운항이 계속되는 국가에서도 탑승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평소보다 몇 배 비싼 항공료를 부담해야 했다. 전세계 운항 이외에 한국행 항공편을 확보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한인회, 우방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동포 귀국이 이뤄졌다.

## 이탈리아 동포 전세계 귀국... “집 밖에선 종일 사이렌 소리만 들려”

3월 31일 밤(현지시간)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동포 309명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로 귀국길에 올랐다. 현지에서 극도로 긴장했던 승객들은 인천공항 도착 후 엄격한 검역과 격리의 대상이 됐지만 이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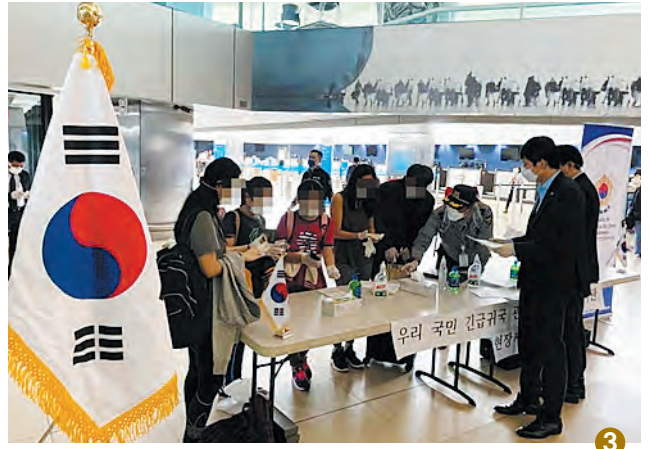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 귀국한 이 모(64) 씨는 “이탈리아는 요새 자국민을 치료하기에도 병상이 부족한데, 우리는 외국인인으로서 만약 감염된다면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장 컸다”며 “이탈리아에서 인천까지 편도 항공료가 2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몸에 이상 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 좋다”고 말했다.

5살 아들과 함께 귀국한 김모, 홍모 씨 부부는 “처음에는 민간에서 전세기를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각국 공항을 우선하고 몇백 명을 태우고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국력이 힘이더라”고





2



3

말하며 정부에 고마움을 전했다. 홍 씨는 “집에만 있었지만, 종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며 “지인은 어머니가 코로나19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병원으로 모시지 못해서 방 안에서 사흘이나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다음날인 4월 2일에는 한국 정부가 준비한 두 번째 전세기를 타고 이탈리아 유학생과 동포 등 113명이 귀국했다.

### 터키, 모로코 동포 의약품 실은 특별기로 귀국해 ‘일석이조’ 효과

현대자동차 터키 법인인 현대앳산 오토모티브가 터키 정부에 30만 유로(약 4억 원)를 기부했다. 현대차 터키 법인의 기부금으로 터키 정부는 한국에서 8만 명분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구매해 4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자국에 들여왔다. 그 결과 터키 내 우리 국민 147명이 이 특별기를 이용해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다. 현대차 터키 법인 관계자는 “항공 노선이 봉쇄된 가운데 의약품을 한국에서 터키로 운송하기 위해 특별기를 마련했다”며 “주터키 한국대사관과 주한 터키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인 한국민 100여 명이 특별 항공기 편으로 4월 3일 귀국한 것도 한국 의료품 운송을 위한 모로코 특별항공편을 확보하는 외교 노력으로 가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는 한국에서 구매한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운송을 위해 화물기 투입을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귀국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왕의 결정으로 특별 항공편(여객기)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당국은 3월 30일 외교부 장관 통화 등을 통해 모로코 정부의 특별 항공편으로 한국민을 귀국시키고 의료물품을 운송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 아프리카, 중남미 동포들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속속 귀국

한인 동포가 많지 않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로 민간 전세기를 공동 임대해 같이 귀국길에 오른 사례가 이어졌다. 당초 우리 동포 수만으로는 모자라 전세기 운항이 어려웠으나 현지 다른 나라 대사들도 한국 주도의 전세기 운항에 자국민 귀국 협조를 요청해와 결국 성사가 됐다.



4

중미 과테말라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70여 명도 4월 14일 멕시코행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대사관과 과테말라 한인회가 함께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는 현지에서 고립됐던 여행객과 출장자, 코이카 봉사단원, 그리고 동포 중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까지 총 73명이 탑승했다. 우리 국민 외에 일본인 8명과 대만인 3명도 함께 탑승했다. 홍석화 주과테말라 대사는 “이번 귀국 지원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대사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대사관과 한인회 간 모범적인 협업의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창]**

- 3월 31일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전세기 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밀라노 동포들(사진·주밀라노총영사관 제공)
- 3월 31일 전세기 탑승 전 한국대사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갖고 가는 한인 동포(사진·주마다가스카르 대사관 제공)
- 멕시코행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오르는 과테말라 내 한국인들이 4월 14일 과테말라시티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 제공)
- 터키 동포들이 4월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터키 정부가 현대차 터키 법인의 기부금으로 구매한 한국 의약품과 의료장비 수송을 위해 이용한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인종차별 비판한  
한국계 미 배우 대니얼 대 김

## “바이러스는 인종 · 성별 · 종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계 미국 배우 대니얼 대 김(한국명 김대현)이 코로나19로 촉발된 미국사회의 인종차별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 대니얼 대 김은 3월 19일 인스타그램에 1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자신이 코로나19에 어떻게 감염됐는지 등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무분별한 폭력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할리우드 리포터 등 미 연예매체가 전했다. 그는 몇주 전 뉴욕에서 NBC 방송의 의학 드라마 ‘뉴 암스테르담’ 시즌 2를 촬영했는데 그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라마 제작이 일시 중단되자 그는 가족이 있는 하와이로 향했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을 느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자마자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자체 격리 기간 발열과 몸살 증상이 찾아왔으며 “‘드라이브 스루’ 진단을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니얼 대 김은 “나는 아시아 사람이고, 코로나19에 걸렸다. 하지만,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에서 감염됐다”며, 코로나19 인종차별에 대해 “비겁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든지 간에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만큼 코로나19가 어디서 유래했는지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두를 위한 건강 관리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면서 “바이러스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부자 또는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니얼 대 김은 “코로나19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10대들과 밀레니얼 세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질병이라는 점을 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을 요청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두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대니얼 대 김은 인기 드라마 ‘로스트’, ‘ER’, ‘하와이 파이브 오’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 “코로나19 역경도 서로 돕고 화합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많은 동포가 손 소독제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길래.., 앞으로도 티 내지 않고 조용히 돕고 싶습니다.” 제약·건강식품·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인 ‘시니(SINI) 오스트레일리아’를 운영하는 호주동포 박성만(54)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동포사회와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방역 물품이 부족한 고국을 돕겠다고 손 소독제 5천 개(약 1천900만 원)를 최근 시드니 한인회에 기부했다. 이 물품은 대한적십자사를 거쳐 국내에 배포됐다. 2월 말에는 시드니 한인 밀집 지역에 손 소독제 2천 개(약 800만 원)를 무료 배포했다.

13년 전부터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시니’는 최근 한 달 동안 55만 개를 판매했다. 그러나 3월 25일 현재 밀린 주문량은 100만 개가 넘는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전



에 유행했던 '사스'와 '메르스'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해 1월 초부터 대량 생산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넘치는 수요로 인해 현재 부자재와 알코올의 공급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전했다. 호주 정부가 3월부터 중국인과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시니'의 거래처 60%가 막힌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집중했다"며, "손 소독제의 빠른 공급을 위해 모든 부자재를 항공편으로 들여오고, 수출도 항공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면돌파로 승부하고 있지만, 항공편도 계속 끊어지고 있어 그는 답답해하고 있다.

"호주에 이민한 지 38년 넘었어요. 어릴 때 와서 젊은 모르지만, 한민족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하나가 돼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 극복해내는 민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역경도 서로 돕고 화합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해외에서 사는 재외동포들의 자부심이자 힘의 원동력입니다." 박 회장은 "시니(SINI)를 동포 2세와 워킹홀리데이 방문자, 호주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 충족할 수가 없네요”

"마스크 살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 열 통은 오고, 공장 문 앞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드릴 수 있는 물량이 없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서 마스크공장을 운영하는 동포 기업인 이병복(56)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는 3월 27일 최근의 상황에 대해 "2교대로 24시간 풀가동해도 늘어나는 마스크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2018년 설립한 마스크공장 '멀티원플러스' (Multi One Plus)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공장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마스크 취급 허가를 받은 업체는 41개고,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이나 수입을 제외하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10개 미만이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한인 업체로는 유일하다.

이 사장의 공장은 작년 12월만 해도 주 5일, 하루 8시간 가동으로 월 100만 장을 생산해 전량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납품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터진 뒤 24시간 완전가동을 시작해 현재 하루 16만 장, 월 400만 장을 생산하고 있다. 이 사장은 "더 만들고 싶어도 마스크의 핵심 원료인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를 구하기 어렵고, 자재가격도 20배로 올랐다"고 말했다.

멀티원플러스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과 육군, 한국인 마스크 취급 업체 2곳에 자체 브랜드 덴탈마스크를 납품하고, 인도네시아의 3M마스크 제품을 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4월 중순부터는 현지 최대 온라인쇼핑업체인 '토코피디아'와 손잡고 온라인 직접 판매에 나선다. 이 사장은 "27년간 의류 생산업에 종사하다 인구 2억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으로 의류용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마스크공장을 세웠다"며 "이번 사태를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합심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인사회 · 고국에  
손 소독제 기부한  
호주동포 기업인 박성만 회장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인 마스크 공장 운영하는  
이병복 사장



# “코로나19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막지 못한다”

##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원격 재택수업 실시

○ 초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4월 6  
TT 일로 미룬 상태에서도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행기로  
한 가운데, 베트남의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장 신선호)가 3월 16일부터 원격 재택수  
업(KIS 온라인스쿨)을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호치민  
시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  
한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길어지는 휴업  
기간에도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년별 교과별 수업을 시작했다.

‘KIS 온라인 스쿨’은 학습관리시스템인  
클래스팅(classsting / 초등·중등)과 클래  
스룸(classroom/고등)을 활용하여 가정에  
서도 학교 수업과 동일한 교육 활동이 이루  
어지도록 전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온라인스쿨은 학급담임의 조회·  
종례는 물론 교사가 직접 제작한 다양한 교  
재 및 정선된 자료들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과 피드백, 과정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 코  
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 위생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반응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도 만족스러워했다. 온라인 수업 3일차에 학생  
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  
가 재택수업 취지에 공감했다. 학업량이나 과제 등의 반응을 토  
대로 교사 워크숍을 열어 수업 운영에 반영했다.

학교 측은 “한국의 교육부도 동남아에 있는 한국학교로는 처음



교사(위)와 학생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제공)




신선호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장.

으로 체계화된 ‘KIS 온라인스쿨’을 정식 수  
업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모델로 해  
서 모든 재외 한국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이  
운영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  
생은 물론 만만치 않은 실시간 교과학습과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중·고등학생  
에게도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피드백  
이 필요하다. 특히 입시를 앞둔 12학년은 철  
저한 학습은 물론 담임교사와의 온라인 진  
학 상담도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수업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 이 학  
교 신선호 교장은 “코로나19도 우리 아이들  
의 배움을 막지 못한다. 학습 결손을 메우  
고 학생과 교감하기 위해 동남아 재외 한국  
학교 중 처음 도입했다. ‘KIS 온라인스쿨’  
이 안전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  
학교 대응 관리계획’을 3월 16일 수립해 추  
진하고 있으며 이날 교사 연수도 실시했다.  
스쿨버스나 학교에서 이중 발열 체크를 한  
다. 음수대를 정수대로 바꾸고 전문업체 방  
역도 했다. 사회적 거리를 두되 교사와 학

생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자 담임교사가 매일 7명씩 5일간, 적  
어도 학생당 주 1회 전화로 소통하는 ‘7×5운동’을 펼치고 온  
라인 상담실도 개설해놓았다”고 소개했다. 1998년 문을 연 호  
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유치원 38명, 초등학교 1천32명, 중고등  
학교 937명 등 재외국민 자녀 2천7명이 재학해 16개국 34개  
재외 한국학교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 서울서 자가격리 체험한 프랑스 기자의 편지… “상식 통하는 시스템”

주간지 르푸앙 기자, 한국식 대응 수용 촉구 서한 기고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뒤늦게 전쟁 중인 것처럼 대대적 격리에 나섰다, 과연 이런 조치가 한국보다 낫다고 주장할 텐가.”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프랑스 기자가 한국식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이 몸담은 프랑스 매체에 실었다.

주간지 르푸앙(Le Point)의 제레미 앙드레 플로레스 기자는 서울에서 함께 취재하던 동료 프랑스인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됐다. 그는 4월 2일 발간된 르푸앙의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 글에서 한국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등 방역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인권침해라는 망상을 그만두고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로레스 기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임의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 내국인은 자택에서, 외국인인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이 조지 오웰 소설에 나오는 ‘빅 브라더’와 같은 말인가.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지만, 한국은 대대적 검사와 격리정책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한국식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시각을 “망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독일 헌법학자 한스 위르겐 파퍼가 한국식 시스템을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독일 언론 보도를 예로 든 그는 “격리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뜻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공공 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태 초기에 감염 위험이 큰 소수의 사람을 격리하는데 주저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결국 전 국민 이동 제한과 국경봉쇄, 상점 영업금지 등 전시(戰時)와도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하게 됐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의 4월 2일 자 표지.(르푸앙 트위터 캡처)

다면서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감금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방식은 “그 어떤 전체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사생활·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격리조치를 따르고 전반적 이동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오로지 시민 정신의 실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레스 기자의 글을 게재한 르푸앙은 표지 사진으로 한강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야외활동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싣고, 표제어는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굴복시켰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적었다. 르푸앙 편집진은 플로레스 기자의 글에 대해 ‘그의 편지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이라는 주석을 붙였다. **창**

# 연해주 독립운동 대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기 맞아

## 우수리스크 기념관, 코로나19 탓에 문 닫고 기념행사도 연기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崔在亨·1860~1920) 선생의 아들과 딸(최 올라)은 어릴적 ‘큰 산’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등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해 한국어로도 발간된 ‘나의 아버지 최재형’에 따르면 선생은 일본군에 체포되기 전 몸을 피해야 한다고 간청하는 자녀를 오히려 다독이며 “내가 떠나서 집에 없으면 일본군들이 어머니와 너희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며 고문할 것이다. 나는 이제 60이 됐다. 충분히 오래 살았고 죽어도 된다”고 말했다. 최 발렌틴은 “큰 누나가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아버지(선생)를 태운 일본군의 차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며 “그날 200명이 넘는 한인이 체포됐다”고 기억했다.

한국외국어대 반병률 교수는 과거 자신의 논문인 ‘4월 참변 당시 희생된 한인 애국지사들’에서 선생을 “러시아 한인사회에서 출세하고 가장 많은 공헌을 남긴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 논문 등에 따르면 선생은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홉 살 때 홍수로 흉년이 닥치자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 첫 한인 정착지인 연해주 포시에트의 지신해(地新墟·치진해) 마을로 이주했다. 성인이 된 선생은 러시아군 통역으로 활동하다 군납회사를 차려 지역에서 막대한 부를 일궜다.

1884년 6월 조·러 통상조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러시아로 귀화했다. 그가 번 돈과 구축한 현지인 네트워크는 훗날 연해주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한인 신문 대동공보 사장, 한인 기관 권업회 회장, 대한민국 의회 외무부장,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 등 그는 민족 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선생은 특히 안중근(1879~1910)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뒤에서 도운 인물로도 유명하다. 안중근은 거사를 앞두고 최재형의 집에서 지내며 그가 구해준 권총으로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은 안중근과 그의 동료들이 붙잡혀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를 알선하려 노력했을 정도로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4월 7일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았으나 선생의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택이 코로나19 여파로 출입 통제되고 있다.

4월 7일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았으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수리스크 옛 고택은 굳게 닫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러시아 연해주 지방정부가 지역에 있는 모든 전시관과 박물관 등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사실 폐쇄 명령 이전부터 한국인의 러시아 입국이 금지되면서 방문객 숫자는 급감한 상황이었다. 올해 우수리스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행사는 코로나19 탓에 일정이 대부분 연기됐다. 최재형 선생의 손자이자 선생의 일대기가 한국에 알려지는 데 크게 기여한 최 발렌틴마저 불의의 사고로 지난 2월 14일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 안타까움은 더한다. 선생의 시신은 아직도 수습하지 못했다. 우수리스크 감옥 뒤편 언덕에서 일본군에 의해 총살을 당했다는 한인들의 이야기에 따라 그곳에 묻혔다는 추정만 할 뿐이다. 국가보훈처는 사단법인 최재형 선생기념사업회를 통해 6월 순국 100주년 추모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 “세계 정상 올라서, 힘든 시기 보낸 한국인에게 희망 주고 싶다”

## 바리스타 세계대회 앞둔 뉴질랜드 국가대표 채승훈 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바리스타 세계대회가 4개월 미뤄져 준비를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상에 올라, 힘든 시기를 보낸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3월 1일 열린 ‘2020 뉴질랜드 메도우 프레스 라떼 아트 챔피언십’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한 바리스타 채승훈(28) 씨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했고, 10월 15~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릴 세계대회에 뉴질랜드를 대표해 출전한다.

지난해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9 세계 라떼 아트 챔피언십’에도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출전해 42개국 선수들과 겨뤄 22위의 성적을 거뒀다. 당시 대회 준비 기간이 짧았기도 했지만, 각국 경쟁자들의 실력이 워낙

탄탄해 역부족을 실감했다고 한다. 라떼 아트 대회에서는 커피의 예술적인 표현, 즉 디자인과 창의성을 비롯해 추출 기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계대회 경험을 토대로 연습을 거듭해 올해 뉴질랜드 대회에서 2등과 무려 55점의 격차로 우승했고, 세계대회 1등도 넘보고 있다. 뉴질랜드 대회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커피 그라인더(분쇄기)를 주고, 세계대회 출전권과 함께 부상으로 대회 경비, 숙박비를 지원한다. 또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면 1년 동안 각국에서 열리는 커피 이벤트에 참여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채 씨의 모친은 1981년부터 4년 동안 한국 국가대표 탁구 선수를 지낸 김정미(56) 씨로, 김 씨는 은퇴 후 뉴질랜드 오를



뉴질랜드 국가대표 바리스타 채승훈 씨.

랜드 시 팀에서 선수 겸 코치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2005년 가족과 함께 이민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바리스타로 성장했다.

오클랜드공대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그가 커피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국내 한 커피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면서부터다. 자연스럽게 바리스타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는 다시 뉴질랜드에 돌아와 커피 회사에 들어갔다.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2017년부터 뉴질랜드 대회에 참가했고, 3등, 4등을 차지하다가 지난해 챔피언에 올랐다. “어머니의 유전자 탓인지 운동이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를 했었죠. 라떼 아트 대회가 요구하는 미적, 예술적인 감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처럼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해야 하는 바리스타 대회는 제게 딱 맞는 도전이었습니다.”

채 씨는 “끝과 답이 없는 게 커피의 매력”이라며 “패션에 트렌드가 있듯이 커피도 트렌드가 있고, 세계 유명 바리스타들이 새롭고 색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그것을 배우고 실행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커피에 빠져드는 이유”라고 소개했다. 그는 선수 양성에도 관심이 있다. 초보자부터 선수까지 자신이 쌓은 경험과 실력을 전수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그는 “어느 분야에서든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배신하진 않는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라떼 아트의 결과는 연습량에 비례한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창**

## 각국 한인회 · 한인단체, '집콕' 한인 · 현지인들에 따뜻한 나눔 손길

호주 · 필리핀 · 미국 · 브라질 등지에서 도시락, 마스크 무료 제공

각국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머무르는 어려운 형편의 한인과 현지인들에게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 시드니 한인회(회장 윤광홍)를 비롯해 이스트한인상우회(회장 박중훈),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유선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시드니지회(지회장 노현상), 민주평통 호주협의회(회장 형주백) 등 한인 단체는 '코로나19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려운 형편의 동포와 유학생·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등을 돕고 있다. 비대위는 스트라스필드, 리드컴, 캔버라 등 한인 밀집 지역 한인업소들에서 4월 30일까지 매주 4회 음식을 대접하는 '따뜻한 식사 한 끼' 캠페인을 펼쳤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회장 변재홍)는 한인 250가구에 비상 식료품 세트를 나눠주기 위해 4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배포에 들어갔다. 각 가정에 쌀 10kg, 라면 20개, 김치 5kg, 마스크 10장 등을 전달한다. 미국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은정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눔 마스크 1천 개를 제작해 한인 홀몸노인을 포함한 동포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인회는 면 마스크 제작을 위한 재료 등 경비를 제공하며, 제작을 도와줄 재능 기부자를 모집하고 있다.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한인회(회장 한용식)와 비영리단체 굿사이버키즈(대표 원유봉)는 4월 12일 성 마이클 성당 앞에서 무료 점심 도시락 300개를 제공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발레와 요가, 기공으로 집에서 머무는 한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온라인 문화·교양 강좌를 개설했다. 발레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요가와 기공은 월, 수, 금요일에 진행된다. 이 단체는 또 실업수당, 연방중소기업청(SBA) 융자, 급여프로그램(PPP)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도 무료로 대행한다.

슬로바키아 한인회(회장 이종호)도 슬로바키아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했다. 현재 이 나라 축구 리그에는 김건·류지성(줄라테 모라브체), 김민서·이응범(FC 코시체 2부리그) 등 8명이 활약하고 있다. 브라질 한인회(회장 홍장표)는 4월 10일 상파울루 봉헤치로에 있는 K-스퀘어에서 한·브라질장학회(회장 제갈영철)와 한인 의류업체 말라게타가 후원한 마스크



미국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한인회의 무료 도시락 나눔행사 장면(사진·팰팍한인회 제공)



'따뜻한 식사 한 끼' 캠페인을 펼치는 호주 한인 단체 관계자들(사진·한호일보 제공)

3천500개를 한인들에게 나눠줬다. 앞서 3월에도 마스크 7천 개를 무료로 제공했다.

한인들은 온정의 손길을 현지 사회에도 내밀고 있다. 몽골 한인회(회장 국중렬)는 코로나 19 진단 키트 2천 개를 몽골 국가 비상위원회에 기증했다. 진단 키트는 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상공회의소, 한인선교사회, 외식업협회, 주몽골대사관, 코이카, 코트라 등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구매했다. 앵호투스 부총리는 "한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인회는 알려졌다.



## ‘한국 대응 사례’ 담은 코로나19 교육자료집 미국 교사에 배포

세계역사디지털재단-美사회과학교원협의회 공동 제작



미국 일선 사회·역사 교사들에 배포된 ‘코로나19 수업자료집’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 제공)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미국 일선 학교의 수업에서 사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비영리재단인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 (이하 교육재단·이사장 한중우)은 사회·역사 교사 연합체인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 (NCSS)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관련 교육자료집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57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동시에, 세계화 시대와 전염병 확산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미국·이탈리아·한국의 대응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수업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국에 대해선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로 매우 공격적으로 검진을 시행했다”면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며 “입원을 비롯한 의료 치료, 강도 높은 검진은 모두 한국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집은 미국의 일선 학교들이 잇따라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상황에 맞춰 PDF 파일로 제작돼 사회·역사 교사 1만5천여 명에게 배포됐다.

교육재단([www.worldhistoryde.org/COVID-19](http://www.worldhistoryde.org/COVID-19))과 NCSS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 브라질 한인 동포들 ‘마스크 선행’… 코로나19 대응에 힘 보탠다

마스크, 손수건 만들어 빈민가와 시민단체에 기부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두 번째로 큰 빈민가인 파라이조폴리스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인동포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권영상)은 한인 규방 공예공방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수건 등 위생용품을 만들어 빈민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한국문화원과 한인 규방 공예공방이 지원하려는 곳은 상파울루 시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빈민가인 파라이조폴리스다. 이곳에는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손 씻을 물은커녕 식수조차 부족해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파라이조폴리스를 비롯한 빈민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거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규방 공예공방 회원들은 평소 보자기 등 생활용품을 만들며 익힌 손재주를 이용해 하루리 천으로 어린이용 마스크와 손수건을 각각 100매를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원은 원단 등 마스크와 손수건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공방 회원뿐 아니라 다른 동포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지 주민들도 각 가정에서 마스크와 손수건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해 문화원 소셜미디어(SNS)에도 올리기로 했다.

한편,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인 봉헤치루 지역의 한인 의류업체는 마스크를 제작해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말라게타’라는 한인 의류업체는 4월 2일까지 열흘 동안 마스크 1만여 장을 제작했으며, 추가로 2만 장을 생산해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 미주 한인단체, 미 의료진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 시작

성금 · 기부 물품 모아 현지 병원에 의료용 마스크 전달



미주 한인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미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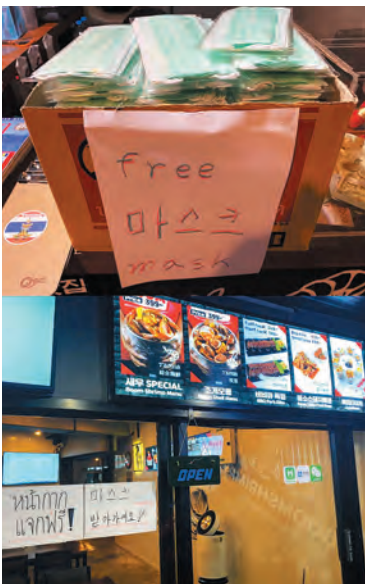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에서 의료장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인 동포들이 현지 의료진을 돕기 위한 마스크 기부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 대표 최광철)은 3월 31일 의료용 마스크를 확보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미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소속 회원과 재미동포의 성금을 모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인증한 마스크를 구매하고, 한인 동포들이 각 가정과 직장에 보유하고 있는 N95, KN95 의료용 마스크도 기부받을 방침이다. 포럼은 성금을 통해 일차적으로 마련한 N95 마스크 500장을 UCLA 병원에 4월 초 전달하기로 했다. 포럼은 또 미주 전 지역의 한인회와 민주평통협의회, 한인 경제단체, 교회 등 종교단체에도 마스크 보내기 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최광철 대표는 “기본 의료장비 공급 부족의 난관에 봉착한 미 의료진들을 시의적절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운동이 미 주류사회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국인 전체에 대한 이미지 격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태국 동포사회 “서로 돕고 나누면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마스크 무료배포 · 자가격리자 밀반찬 지원 등에 ‘잔잔한 감동’



태국동포 성대현 씨가 운영하는 방콕 시내 불쉬림프 식당 안에 준비된 무료 배포 마스크와 안내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태국 동포사회에서 서로 돕고 나누며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깊은 행보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방콕 후웨이팡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불쉬림프’를 운영하는 성대현(39) 씨는 2월 중순부터 구하기 힘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동포들에게 나눠주어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배달 음식 고객에게 마스크 10매와 손 세정제 2개를 넣어준다. 가게 정문에는 ‘마스크 무료배포 받아 가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스크 · 손 세정제 구매 비용으로 2천만 원 가량을 썼다는 성씨는 4월 5일 “처음에는 가게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어치를 구매해 무료 배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동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이후 태국 및 한국 마스크 업체와 줄이 달아 대량 구매한 뒤 많이 나눠드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태국 지원도 3월 21일부터 자가격리로 인해 식사하거나 음식 재료를 사는 것이 불편한 동포들을 위해, 배송비를 부담하면 매주 한 차례씩 밀반찬 서너 가지를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또한, 동포 2천여 명이 가입한 한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 운영 동포를 위해 영업시간 및 매장 위치, 전화번호 그리고 이용 가능한 배달 앱 등을 정리한 ‘한인 식당 리스트’도 올라와 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인 동포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댓글이 적지 않다. **장**



**고려인, 러시아 극동 10만 도시 시장으로 공식 선출돼**

러시아 극동에 있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고려인 시장이 나왔다. 연해주 현지 매체인 보스트크 미디어에 따르면 고려인 권 바체슬라프 시장 권한대행은 4월 14일 아르툰 시의회에서 진행한 시장 경선에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해주 관계자 등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경선위원회는 투표를 거쳐 권 바체슬라프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아르툰은 연해주에서는 우수리스크에 이어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다.



**미 뉴저지 주 첫 한인 시의원 마이클 윤, 코로나19로 별세**

미국 뉴저지 주 저지시티의 마이클 윤(66·윤여태) 시의원이 4월 6일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스티븐 플롬 저지시티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윤 의원의 별세 소식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한다”면서 “그는 위대한 동료였고, 자칫 줄 모르는 봉사자였다”고 추모했다. 윤 의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왔다. 1979년 뉴저지 주로 이민한 그는 2013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저지시티 시의원에 당선됐고 2017년 재선에 성공했다.

**강제징용 사할린 한인들도 모국에 코로나19 성금**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한인 후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고국을 돕기 위해 성금 3천900 달러(약 480만 원)를 전달했다고 3월 28일 사할린주 한인 협회(회장 박순옥)가 알려졌다. 박 회장은 “3월 11~20일 이산가족협회, 한인여성회, 지역한인회, 한인 기업 등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 내용은 사할린 동포신문 새고려신문(사진)이 보도했다.



**월드옥타, 전 세계 동포에 마스크 5만 장 발송**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보건 마스크(KN95) 5만여 장을 발송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마스크는 8개 대륙 31개국 56개 도시에 배포된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한인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와 유학생 등에 제공된다. 이번 마스크 보내기에는 하용화 회장 등 월드옥타 임원과 60개 이상의 지회 회원이 참여했다.

**베트남 K&K 트레이딩 고상구 회장, 현지 정부에 2억여 원 쾌척**

베트남 최대 한국식품 유통업체 'K-마켓'을 운영하는 고상구 K&K트레이딩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만 달러(약 2억1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현지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 전달했다. 고 회장은 4월 3일 이 기구 본부를 찾아 전 탄 만 위원장에게 성금 10만 달러와 마스크, 라면, 쌀 등 7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기증했다. 이 자리에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도 참석했다.



**태국 한인사회, 코로나19 성금 2천480만 원 대구·경북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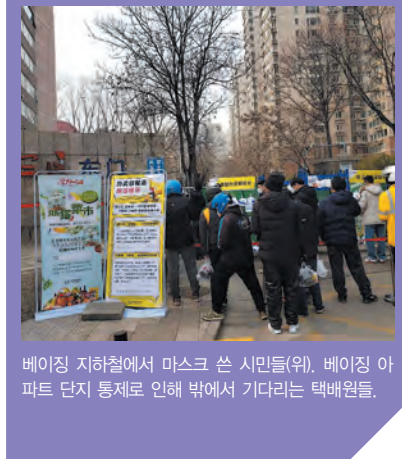
재태국 한인회(회장 황주연)는 4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경북 주민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한인회는 방콕 시내 한인회 건물에서 박성남 한인회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한인회 관계자와 하태욱 주태국 대사관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2천480만6천 원(225만 원 상당 물품 포함) 전달식을 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하던 3월 4일부터 시작해, 한 달간 진행됐다.

#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베이징 시민들의 일상

## 스모그에도 안 끼던 마스크 이젠 모두 착용... 불안 심리 반영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은 전 세계에 서 '지독한 스모그'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정작 뿌연 하늘에 익숙해진 베이징 시민 중에는 미세먼지로 목이 텅 텅해져도 어느 정도 적응된 탓인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던 베이징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이제 외출 또는 출근 시 필수품이 됐다. 우한(武漢)을 기점으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월 말부터 중국 본토를 뒤덮으면서 나타난 변화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 경비원부터 제지한다. 그리고 지하철 역이나 식당 그리고 쇼핑몰 등에도 들어갈 수 없다. 잠깐만 벗어나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각오해야 한다. 이미 중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종식 수순을 밟고 있지만, 코로나19 공포가 모든 시민의 마스크 착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초부터 부분적으로 문을 연 미용실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일단 전화로 예약한 뒤 마스크를 쓴 채 이발을 해야 한다. 물론 미용사 또한 마스크를 쓴다. 직접 접촉을 피하려고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는 것도 삼가는 분위기다. 스타벅스 등 베이징 시내 커피숍도 커피를 마실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는 등,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베이징 거리마다 볼 수 있는 발 마사지 가게 또한 문을 닫아걸었다. 최근 일부 문을 열



베이징 지하철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위). 베이징 아파트 단지 통제로 인해 밖에서 기다리는 택배원들.

기는 하지만 이 또한 손님과 점원 모두 마스크를 하고 발열 체크를 해야만 한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공원 등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시민들이 산책 또는 등산하는 향산이나 차오양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감시원들이 나타나 제지한다.

베이징 한인 최대 밀집지인 왕징(望京)의 한 동포는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안정됐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을 보지 못했다”면서 “몇 달간 시달린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심리적 안전판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일하며 식사 또한 모여 먹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 자리로 가져다 먹거나 도시락 등을 배달해 먹고 있다. 식당 또한 발열 체크 후 자신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별도로 적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두 명 이상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으며 마주 봐서도 안 되는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규제가 지나칠 정도다.

베이징 시민들은 같이 모여 마작을 하고 광장무를 추며 휘귀를 먹는 단체 식사를 좋아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스크의 생활화, 집단 모임 회피 문화가 강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전 베이징 시민들에게만 지독한 스모그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19인 셈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면서 베이징 시민들의 외출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혹독한 통제에 놀란 탓인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보호를 위한 심리적 강박증은 당분간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심재훈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 “방역 베테랑 한국에 경의”... 유럽의 코로나19 거점 이탈리아의 찬사

## ‘한국 모델’ 공영방송에 소개된 뒤 SNS서 화제... 자국 참사와 비교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의 하나인 이탈리아 국민 사이에 한국의 방역 모델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봉쇄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한 한국의 방역 성과가 공중파 방송을 타고, 또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파되며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월 25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현지 공영방송 RAI와 화상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차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RAI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인터뷰에선 광범위한 바이러스 검사가 소개되고, 이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비롯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감염자(의심자) 동선 추적·격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방역 모델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동제한령과 상점 폐쇄 등 봉쇄 일변도의 조치를 한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와의 차별성이 도드라졌다.

해당 인터뷰는 3월 28일과 31일, 4월 4일 세 차례 RAI2 시사 프로그램인 ‘페트롤리오’(Petrolio), ‘파트리에’(Patrie) 등에서 방송됐다. 이탈리아 현안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 등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페트롤리오는 매주 토요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데 5% 이상의 시청률을 기



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방역 모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제도적으로 열악한 이탈리아 여건상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도 최악의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롬바르디아 주(州)의 아틸리아 폰타나 주지사는 한국 방역 모델이 아주 뛰어나지만, 이탈리아가 아직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련 영상은 RAI2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라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한국 방역 모델’이라는 제목을 단 해당 영상은 4월 12일 기준 6만5천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1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공유 횟수도 1천200회에 달한다. 댓글에는 ‘한국은 바이러스 대응에서 베테랑이다’, ‘방역의 표본이다’,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한참 뒤쳐졌다’, ‘한국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찬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한 누리꾼은 “한국 방역 모델의 우수성이 알려진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는 무엇을 했다. 왜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RAI2는 4월 7일에도 ‘한국의 방역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의 또 다른 영상을 올려 한국의 뛰어난 감염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역시 일주일도 채 안 돼 1만6천 건의 조회 수를 올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피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한국 방역 모델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 당국자에 이어 일반 국민도 매우 진지하게 주목하는 분위기다. [▶](#)

전성훈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

# 인도 한인사회, 코로나19 따른 봉쇄령 속 다양한 지원 활동

## 빈민촌서 수천 명분 배식·식품 전달... 발 묶인 유학생도 도와

인도의 한인 동포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봉쇄령을 뚫고 현지에서 따뜻한 정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현지 동포사회와 한인회 등에 따르면 3월 10일 수도 뉴델리 북부 하이데르푸르의 빈민촌에서는 태극기를 단 소형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다. 트럭에서 내린 한인 여성은 인도인 직원과 함께 찐쌀 1천 봉지와 채거리 1천 봉지를 현지인에게 나눠줬다. 채거리는 사탕수수즙이나 야자나무 수액을 증류해서 만든 정제하지 않은 흑설탕 덩어리다. 원료에 따라 맛이 다르며 소스 등 남아시아 음식에 널리 쓰인다.

이날 한인사회는 국가봉쇄령이 발동된 후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빈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자 현지인에게 절실한 식자재 등을 전달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것이다. 특히 뉴델리 시내에서 식품 전문점 '도토리'를 운영하는 이 여성은 주변 후원 등 지원을 받아 이날 직접 식품 배급까지 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현지에 중국인 등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일자 태극기를 차에 걸고 한국인은 다르다는 점도 알렸다.

봉쇄령 하에서는 일반 시민의 외출이 제한되지만, 식품 배달 등 필수 직종 관계자는 허가를 얻어 이동할 수 있다. 이날 경찰, 공무원 등의 도움 속에 배급이 시작됐고 인근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순식간에 줄이 길어졌다. 이 배급 트럭은 이후 인근 살리마르바그의 빈민촌에서도



4월 10일 인도 수도 뉴델리 빈민촌에서 식품 배급에 나선 한인 차량에 태극기가 걸려있다(위). 4월 10일 인도 수도 뉴델리 빈민촌에서 식품을 나눠주는 한인.(사진·뉴델리 동포 제공)

4천 명분을 배식했다.

식빵 기부에 나선 뉴델리의 '레햄빵집'에는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후원 물량이 몰려들고 있다. 이 빵집과 함께 나눔·봉사 비정부기구(NGO)를 운영하는 유영자씨는 "우리 가게와 동포가 절반씩 후원해 100루피(약 1천600원)짜리 식빵을 어려운 인도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봉쇄

령이 내린 뒤 열흘가량 동안 식빵 5천 개 분량의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금은 후원 빵을 모두 만들지 못할 정도로 물량이 밀렸다"며 "이에 남은 금액으로 콩기름 등을 사서 쓰레기통, 나환자촌의 어려운 인도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쇄령 발동 후 발이 묶인 우리 유학생을 위해 뉴델리 지역 한인 식당 운영자와 한인 단체 등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뉴델리는 물론 인근 구루그람(옛 구르가온)과 노이다 등의 동포들은 최근 라면 등 간편식, 김치, 식수, 과일 등을 모아 델리대, 자와할랄네루대(JNU) 등의 기숙사에 고립된 유학생과 한국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여러 한인 종교 단체에서도 식량, 설탕, 소금, 기름 등을 사서 빈민가에 나눠주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공장 등이 있는 남부 첸나이에서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기금을 모아 지역 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재인도한인회도 이런 여러 후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나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박익돈 재인도한인회장은 "봉쇄된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한인 동포가 많다"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는 주재원, 유학생, 한인 동포 등 약 1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

김영현 연합뉴스 뉴델리 특파원

#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로 불린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사태 맞아 그의 전문성, 리더십이 더욱 아쉬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WHO(세계보건기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발생 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중국의 방역 정책을 칭찬한 것이라든지,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 탑승객 감염자를 일본 통계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화살은 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낸 테워드로스 거브리여수스 사무총장에 집중된다. 그는 WHO 창립 이래 유일한 비의료인 출신 사무총장이며, 2017년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몰표를 얻어 당선됐기 때문에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인류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WHO 수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문제로 꼽히다 보니 2006년 과로로 숨진 이종욱 전 사무총장을 아쉽게 여기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는 2003년 WHO 6대 사무총장에 선출돼 한국인 최초로 유엔전문기구 수장이 됐다.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종욱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울대 의대로 진학했다. 1976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러 경기도 안양의 성 라자로마을에 갔다가 1972년부터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던 일본인 가부라키 레이코(鎌木玲子) 씨를 만났다.

그는 다른 나라까지 와서 헌신하는 모습에 감명받아 청혼했으나 거절당했다. 레이코 씨는 “내가 몸이 자주 아팠고 오랫동안 한센병 환자와 부대끼며 살아 그 남자까지 불행해지면 어쩌나 불안했다”고 훗날 털어놓았다. 이종욱은 “내가 고쳐주면 되지 무슨 걱정이나”며 밀어붙여 1979년 결혼했다. 그해 미국 유학을 떠나 하와이주립대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1983년부터 남태평양 사모아의 린든 존슨 병원에서 한센병 치료와 연구에 매달렸다. 피지의 WHO 남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도 일하며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그 뒤 필리핀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한센병 자문관으로 일하다가 1994년 본부로 옮겨 질병관리국장, 예방백신국장, 결핵국장 등을 역임했다.

예방백신국장 시절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보급해 재임 1년 만



생전의 이종욱 WHO 전 사무총장.

에 유병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한 명 이하로 낮췄다. 미국의 과학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그에게 ‘백신의 황제’란 별칭을 붙였다. 결핵국장 시절에는 국제의약품기구를 설립, 약값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가난한 나라를 도왔다. 북한도 방문해 6만 명의 결핵 치료제를 지원했다.

2003년 1월, 벨기에와 멕시코 후보를 누르고 WHO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그해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유행했다. 7월 취임하자마자 전략보건운영센터를 만들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안에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훗날 신종플루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때도 진가를 발휘했다. 그는 재임 시절 본부 사무국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대신 빈곤지역 의료 지원에 집중했으며, 에이즈 퇴치와 조류독감 치료에 큰 성과를 거뒀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는 이종욱을 믿고 WHO에 7억5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임기 5년 가운데 2년이 채 못 된 2006년 5월 22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정부는 최고등급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장]

##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재단, 희망 릴레이 캠페인 시작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참여 방법은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아넷(www.korean.net) 사이트에서 릴레이 캠페인 피켓 양식을 출력한 뒤,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인증샷을 찍고, 게시판에 거주국 코로나19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올리면 된다.

4월 17일 현재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는 한우성 이사장, 심상만 (사)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장, 홍명기 한상 리딩CEO 공동의장, 주점식 캐나다한인회 총연합회장, 김점배 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비롯해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44명이 동참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캠페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세계 곳곳에서 기부와 선행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계시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소식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재외동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나선 한우성 이사장.

재단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재외동포, 대한민국 모든 국민,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아픔을 함께한다”면서 “위기 앞에 늘 강했던 우리 민족이기에 지금의 이 위기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 메시지를 담아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국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은 “동포들이 관련된 많은 사업장의 폐쇄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동포사회는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점배 회장도 “마스크를 구입하려 해도 현지에선 구할 수가 없으며 국내에 친척들에게 요청해도 국내의 수급사정으로 택배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외동포들에게 최소한의 마스크는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750만 재외동포가 하나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외쳤다.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창비)

하와이의 ‘사진 신부’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 출간되었다. ‘사진 신부’는 하와이 농장에서 사탕수수과 파인애플을 재배하던 이민1세대들이 조선인 신부의 사진만 보고 혼인한 일을 말한다. 하와이로 떠난 세 여성은 사진 한 장에 인생을 걸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의 인생은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로 남았다. 2020년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한국 후보로 지명된 이금이가 작가는 그간 인간의 선함과 희망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왔다. 하와이로 떠났던 세 여성의 이야기는 이국 땅에서 연대와 사랑으로 살아왔던 삶에 담긴 의지와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 밤은 태양이다 박미하일 (상상)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의 소설 ‘밤은 태양이다’는 주인공 비켄티의 삶과 여정을 통해 삶과 사랑의 본질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따스함을 그리워하는 수백만의 고통이 봄을 불러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움츠려있는 현 상황에서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보자.



#### 페치가 최재형 박환 (선인)

2020년 4월 7일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기 되는 날이다. 최재형 선생은 자신이 쌓은 재산으로 나라 잃은 동포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동포사회 계몽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물심양면 지원하여 의거를 성공하게 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현지 한인들과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 페치카(백난로)라는 칭호도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최재형 선생의 일화를 접해 봄으로써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던 선생의 정신을 닮아보자.





# 바른 말 고운 말

## 안절부절 못하다

흔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앓았다 일어섰다 할 때 '안절부절 한다'고 하는 이도 있고, 또 '안절부절 못한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표준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절부절'이란 말은 원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절부절의 어원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안절부절'이 '않지도 못하고 아니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 중심으로 풀어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라 하겠지요. 이처럼 '안절부절'을 '이러지도 저러지도'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절부절 못하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의 뜻이 되지요. '안절부절'에 '못하다'가 붙어야 함을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말이란 것은 써다 보면 변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안절부절 못하다'인데, 여기서 '안절부절'만 가져와도 불안해서 어찌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됩니다. '엉터리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엉터리'만 가져와도 '엉터리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입추의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이 보기 원하는 경기나 공연에 가 보면,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일까요? '입추(立錐)'라는 말은 한자의 '세울 립(立)'자와 '송곳 추(錐)'자를 써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송곳을 세울 만한 자리가 없을 만큼 빈틈이 없고 비좁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뻘뻘하게 가득 찼으면, 그 자리에 뻘뻘한 송곳 하나 세울 자리가 없겠습니까. 과장법을 사용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입말보다는 글말을 많이 쓰는 어른들이 사용합니다. 하나의 관용구 표현처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BTS 방탄소년단 공연에 갔더니 공연장에 수많은 팬이 꽂들어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밀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앉아 있는 관중을 보니, 이 경기가 얼마나 관심을 끄는지 알겠다."

##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 가로 방향 열쇠

-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하여 임시로 조직한 정부
- 제비, 종달새 등의 우는 소리
- 화학, 생물학, 방사능을 줄여서 표현한 말
-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 어떤 일이 급속도로 진전됨
- 밝고 어두움
- 중심별의 강한 인력 영향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중심 별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있는 것
-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
-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주로 얼굴이나 몸매 따위가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
-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톰보가 발견할 당시에는 태양계의 아홉째 행성이었으나 2006년부터 왜행성(矮行星)으로 분류되었다
- 같은 제법 비슷하나 속은 다른. ○○○ 종교
- 어린이의 성장·발달의 한 단계. 유아기와 소년기의 중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에 해당하는 시기
-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문학
- 서재필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한국 최초의 순 한글 신문

### ▶ 세로 방향 열쇠

- 영화나 광고 작품을 제작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 앞서 미리 반응을 살펴보고자 상영하는 기회를 갖는 모임을 말한다
-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
-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세 가지 주영양소 중 하나.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나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비만을 야기한다
-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머물러서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김치를 담그거나 차를 끓여 먹을 때 사용하는 향이 강한 뿌리줄기의 향신료
-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하여 전국의 대규모 시민에게 확대된 반독재투쟁이나 혁명.
- 성과 이름
- 병 따위의 증세가 갑자기 나타나고 빠르게 진행되는 성질
- 올해 일어난 일을 전년도에 일어난 것과 비교하는 것. '전년도○○'
-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의를 표시하는 말이나 몸짓
- 생존한 선왕(先王)의 비(妃)
- 한해씩 거르는 것. '이 행사는 ○○○으로 열린다'
-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해전에서 왜군을 격파하여 승리로 이끈 명장. 시호는 충무공(忠武公)
- 외국에 가서 공부함
- 왕 또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예수'를 이르는 말. '그리스도'의 음역어이다

### ▶ 2020년 3월호 정답

사	물	놀	이	연	지	곤	지
장	발	전	소	총			
고	구	마	쟁	대	학	교	
소	취	미	가	위	향		
공	작				농	협	
포	산	소	수	박	주		
증	조	모	공	사	모	곡	
감	김	일	성	성			
세	도	정	치	경	천	애	인

# 코로나19에 대응해 지구촌 한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코**로나 19에 대응해 지구촌 한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두 가지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세계 곳곳의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WHO) 사이트(www.who.int)이다. 전 세계 주요 방송, 언론, 포털 사이트가 WHO에서 제공하는 각 나라 코로나19 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WHO 사이트 첫 화면에 등장하는 '국가정보'에서 한국을 클릭하면 나오는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누락되어 있다. 반면, 일본 정보를 소개하는 지도 속에 이들 섬이 표시돼 있다. 일본 지도에는 태평양의 많은 일본 부속 섬까지도 자세히 반영해 놓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홍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방지할 수 없어서 바로 WHO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코로나19로 올바른 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할 WHO가 한국을 바르게 소개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세계인들을 위한 일이다. 한국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고 일본지도에서는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WHO는 한 달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어떻게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 달째 시정하지 않고 방지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에 대해 한국의 모범적인 대응으로 세계 곳곳의 언론사에서 한국 관련 기사가 넘치고 한국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 또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한인들이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다면 한국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가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두 번째로 한인들과 함께하고 싶은 일은 코로나19로 절망과 공포에 빠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일이다. 최근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는 한인 동포들과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기는 디지털 포스터를 11개 언어로 제작해 전 세계에 SNS로 배포하고 있다. 디지털 포스터는 영문자 'COVID19'를 'Courage' (용기), 'Openness' (열린 마음), 'Victory' (승리), 'Information' (정보), 'Defence' (방어), 1(하루), 9(9명)로 풀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 나라 인종 차별과 혐오를 멈추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실천하며 자신과 주변을 방어해야 한다. 또 하루아침 명과 마음을 나누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디지털 포스터를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1만5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고, 1천회 공유했다. 나라별로는 스페인, 멕시코에서 4천89명이 호응했고, 베트남은 3천262명, 태국 1천76명, 미국 722명, 인도네시아 6천 명이 각각 지지했다. 희망 포스터를 통해 외국인들은 나라별 언어로 'COVID19' 단어로 슬로건을 만들어 공유도 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었고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세계 곳곳의 한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인들에게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자.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가 바로 한국홍보대사이며 지구촌 희망대사이다. **장**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우리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요!



##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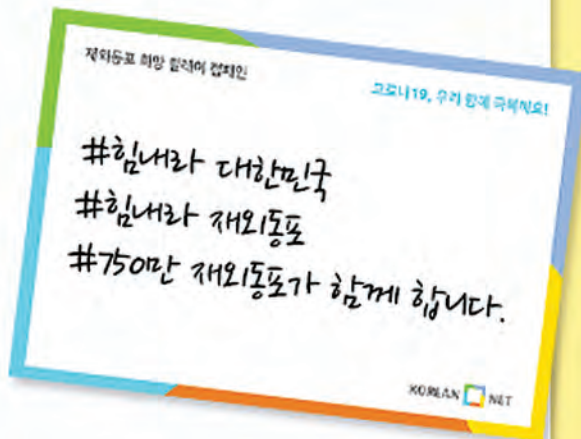
### 참여방법

코리안넷(Korean.net) 접속!

- 1 피켓출력  
코리안넷  
다운로드
- 2 손글씨  
응원메시지  
작성
- 3 인증샷 촬영
- 4 게시글 작성,  
다음주자 지목  
(2명 이상)
- 5 게시글 게시  
(SNS공유)

### 피켓 응원메시지 예시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재외동포! (또는 거주국이나 단체명)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합니다!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



# 제22회

# 재외동포문학상

2020. 4. 1. [WED] ~ 5. 31. [SUN]

한국시간 기준

## 응모자격

### 성인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 청소년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 부문 |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중·고등 부문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성인),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 입양동포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 공모부문 · 주제

###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 · 단편소설 | 자유주제
- 체험수기 |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

### 청소년(글짓기)

- 내가 다니는 한국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한국(모국) 방문 및 한국어 학습 경험담
- 기타 자유로운 주제(자랑스러운 한국인,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담 등)

### 입양동포 부문

- 본인, 가족의 정체성 확립 여정 및 '뿌리' 탐색기
- 기타 자유로운 주제(가족상봉, 한국 방문 경험담 등)

## 시상내역

###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대 상(3명) | 300만원, 상패(부문별 1인)
- 우수상(6명) | 200만원, 상패(부문별 2인)
- 가 작(9명) | 50만원, 상패(부문별 3인)

### 입양동포(입양수기)

- 대 상(1명) | 300만원, 상패
- 우수상(1명) | 200만원, 상패
- 가 작(2명) | 50만원, 상패

### 청소년(중·고생/초등)

- 대 상(2명) | 100만원, 상패(부문별 1인)
- 우수상(4명) | 50만원, 상패(부문별 2인)
- 가 작(6명) | 30만원, 상패(부문별 3인)

### 한글학교

- 특별상(2개교) | 200만원, 상패

## 접수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코리아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존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하여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문의(유선 및 이메일)

재외동포 문학상 운영사무국 T. 02-2233-4027 E. culture@okf.or.kr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